

정서지능연구의 현재와 미래

문 용 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I. 서론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본격적인 학술논의의 주제로 처음 다루어진 것은 1990년 8월부터이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98차 미국심리학회 연차대회(1998. 8월)의 한 심포지엄에서 EI 개념의 창시자의 한사람인 Mayer(1990) 교수가 EI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토론을 하게 된다. EI 개념에 대한 긍정과 부정, 우호와 적대,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성격을 갖는 많은 토론이 개진되었는데, 개념이 아직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비판에서부터 지능연구의 오래된 전통을 겁 없이 흔들고 있다는 아우성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Mayer & Salovey, 1993).

물론 이 토론의 핵심 내용은 이 대회개최 불과 얼마 전에 Salovey와 Mayer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Emotional Intelligence”(1990)라는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EI를 학술개념으로 등장시킨 최초의 논문으로서, 가히 기념비적 논문이라 할만하다. 정서지능(EI)이라는 용어를 학술개념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이 논문 속에 역력히 배어있기 때문이다. 1920년대 E. L. Thorndike의 논문에서부터 1988년에 이르는 논문 등 무려 162개의 무거운 글들을 섭렵하면서 EI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자했다. 아울러 지능연구의 현재적 대가라 일컬을 Robert Sternberg의 꼼꼼한 자문을 받았음도 조심스럽게 밝히고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 가지 명제는 1990년 이래 현재까지의 EI에 대한 모든 논의의 기초이자 출발점이 되어오고 있다. 그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로, 정서지능(EI)은 심리학에서 그간 이루어져온 지능연구의 오랜 전통과 맥락 속에서 탄생한 개념이며, 전통적인 “지능”(intelligence)의 개념에 배치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다.(p.186) 즉, 정서(emotion)와 지능(intelligence)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내용(contents)과 대상(objects)으로서의 정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다룰 줄 아는 능력(ability)과 기술(skills)로서의 지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서와 지능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해석한 학자들은 지능연구의 긴 전통과 그 속의 여러 학자

들 사이에 흔히 있던 사례라는 것이다.

둘째로, 정서지능은 전통적으로 논의 되어오던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의 한 하위요소(subset)라고 볼 수 있는바, 현재 사회지능의 하위요소들로 제언되고 있는 Epstein의 구성적 사고능력(constructive thinking)이나 Cantor의 사회문제해결력(social problem solving)등과 마찬가지로 정서와 감정이 개재되어있는 사회문제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서지능은 H. Gardner의 사회지능 개념에 해당되는 대인지능(personal intelligence: inter/intra personal intelligence)의 한 하위요소로도 간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서지능은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는 정신 활동으로 구성되는 데, 각각의 정신활동들은 다시 2 - 4개의 하위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 정서지능은 3영역에 걸친 10가지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Salovey와 Mayer는 이 논문에서 이런 “3영역 10가지 능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후의 EI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논문(Salovey & Mayer, 1990)을 바탕으로 상당히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논쟁들(Wegner, 1990; Mayer, 1990)을 겨냥하여 Mayer와 Salovey(1993)는 “Intelligence”(1993, 17, 433-442)라는 지능연구 학술전문잡지의 사설 난을 빌려 그런 비판에 대한 조목별 대응을 하게 된다.

1990년 이후로 EI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가 이렇듯 심각하게 그러나 조금은 지루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실제로 EI에 대한 관심은 일반대중 속에서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된다. 즉, The New York Times의 과학 담당 기자인 D. Goleman이 Salovey와 Mayer의 이론을 바탕으로 “Emotional Intelligence”(1995)라는 제목의 단행본 책을 내기에 이르게 되고,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 주간지인 The Times(1995. 10. 9 일자)가 EI를 대대적으로 소개하기에 이른다.

이 덕분에 EI는 단숨에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심리적, 교육적 개념

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 글의 필자인 Nancy Gibbs 기자는 EI를 측정
한 수치를 “Emotional Quotient”(EQ)라고 써서, IQ와 대비시켜 설명했는데,
그 이후로 EQ라는 용어가 EI를 대신하여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The Times 기사이후 EQ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온
갖 매스컴이 이를 집중취재하기도하고, D. Goleman의 “Emotional
Intelligence”를 위시한 많은 EQ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기에 이른다. 이런 와
중에 EI 개념의 창안자인 미국 Yale 대학의 Peter Salovey 교수가 서울에
초청되어 직접적인 EI 강의를 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EI 혹은 EQ를 감성지능과 정서지능이라는 두 가
지 이름으로 혼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정서지능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우선 “감성”은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아니지만,
“정서”(emotion/ affect)는 비교적 오랫동안 학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해
온 개념이다. 아울러 감성은 “능력”(ability)과 “기술”(skill)의 의미보다는 성
격의 “특징”(characteristics)과 “특성”(trait)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EI와
EQ의 핵심적 의미를 오도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1990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EQ논의
의 흐름을 개관해 보았는데, 그러나 정작 본격적인 논의는 최근 들어 활성화
되고 있는 느낌이다. 한가지 사례를 들자면, Salovey와 Mayer는 1997년의
최근 논문에서 그간 견지해온 1990년도 EQ모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새로
운 EQ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EQ연구의 현재 모습을 짚어 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고
자하여 시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관심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정서지능의 개념을 에워싼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둘째, 정서지능 연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II. 정서지능의 개념

Salovey와 Mayer(1990)가 최초로 제시한 EQ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정서지능이란 사회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monitor)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discriminate)하며, 생각(Thinking)하고 행동(actions)하는 데 이런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ability)이다.”(p.189).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3영역 10요소”로 규정하고, 세 영역과 열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매우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정서지능의 3영역 10요소모형(1990)

영역	10 요소
영역 I 정서의 인식과 표현	[요소 1] 자기 정서의 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2] 자기 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3] 타인 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3] 감정입입
영역 II 정서의 조절	[요소 5] 자기의 정서 조절 [요소 6] 타인의 정서 조절
영역 III 정서의 활용	[요소 7]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요소 8] 창조적 사고 [요소 9] 주의집중의 전환 [요소10] 동기화

D. Goleman은 위의 모형을 토대로 했으나, 그의 유명한 책 “Emotional Intelligence”(1995) 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EI 구성요소를 다섯 개로 추출해서 제시한다.

- 정서의 자기인식능력(Self-awareness)
- 정서의 자기조절능력(Self-management)
- 정서의 자기동기화능력(Self-motivating)
- 감정이입능력(Empathy)
- 대인관계능력(Social skills)

이것들은 Salovey와 Mayer의 3영역 10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보이는 데, 어느 곳에서도 그 절충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런 Goleman의 자의적인 절충은 Salovey와 Mayer의 원래 모형도 자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Salovey와 Mayer의 EI에 대한 정의와 “3영역 10요소” 모형에 대한 일반대중과 전문학계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다. 일반대중들과 학자들도 모두 EI라는 개념의 참신성과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찬사를 보냈으나, 전문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 많았다.

그래서 1990년 8월의 미국심리학연차대회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진 다. 비판의 핵심은 EI 개념과 구성내용의 모호성이었다. 예컨대, EI를 과연 “intelligence”로 볼 수 있겠는가 또는 정서(emotion) 또는 감정(feeling)이 어떻게 능력(ability)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쏟아지는 비판과 염려 그리고 조언을 모아서 Mayer와 Salovey(1993)는 “정서지능이라는 지능”(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긴 논문을 쓰게된다. 이 글에서 그들은 1990년에 제시한 EI의 기조(基調)를 완강히 고수한다.

첫째로, 이들은 EI는 분명히 “Intelligence”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competence”, “characteristics” 또는 “trait”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명백히 거부한다. 이들이 보기에 EI는 지능이며, 일반지능과 부분적으로(Partially)변별되는 특성을 갖는데, 이런 변별적 특성에서 보면 EI는 일반지능에 보다는 사회지능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갖는다.

둘째로, 이들은 EI는 다른 어느 지능도 갖고있지 못한 특수한 능력

을 함축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세 가지의 이런 특수한 능력을 꼽고 있다. 하나는 정서성(emotionality) 또는 즉 정서상태(emotional state)가 행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결정하고 영향 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서조절이 정보의 수집경로(information channel)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것이 결국 행동과 사고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나머지 하나는 정서표상(emotional representations)에 관계되어있는 정보의 부호화와 해독(coding/ decoding)하는 능력이 존재하며, 이 능력은 다른 “지능” 속에 함축된 능력이 아니다.

셋째로, 이들은 EI를 공연히 지능영역 속에 포함 시켜 연구를 하게 되어, 지능연구의 전통과 맥락에 혼동만을 가져오게 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오히려 이들은 EI연구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지능연구에 활력과 새로운 서고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4년이 지난 후, Mayer와 Salovey는 자신들의 “변화된 주장”을 담은 또 하나의 중요한 논문(1997)을 발표하게 된다. 변화된 입장을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990년의 연구에서 우리는 정서지능을 그것이 함축하고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다. 즉, 정서지능이란 사회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monitor)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discriminate)하며, 생각(Thinking)하고 행동(actions)하는 데 이런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ability)이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지능개념 속에서의 EI의 위치를 명백히 하지 못하고 있고, 정서의 인식과 조절능력은 포함되어 있으나, 감정(feeling)에 대한 사고(thinking)능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정의(定議)는 아니었다고 인정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새롭게 수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서지능은 다음의 네 가지 능력을 포함하는

지능인바, 첫째는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이며, 둘째는 사고를 촉진하는 감정을 생성시키고 접근하는 능력이고, 셋째는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서조절능력이다(Salovey & Sluyter,1977, p.10).

이런 수정된 정서지능의 정의에 따라 Mayer와 Salovey는 EI의 구성내용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4영역 4수준 16 요소모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모형을 간략히 요약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모형(1997)

영역	수준
영역Ⅰ 정서의 인식과 표현	[수준1]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기
	[수준2] 자신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기
	[수준3]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수준4] 표현된 정서들을 구별하기
영역Ⅱ 정서의 사고 촉진	[수준1] 정서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의 우선 순위 정하기
	[수준2]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수준3] 정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 취하기
	[수준4]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촉진하기
영역Ⅲ 정서 지식의 활용	[수준1] 미묘한 정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기
	[수준2] 정서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기
	[수준3] 복잡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하기
	[수준4] 정서들간의 전환을 이해하기
영역Ⅳ 정서의 반영적 조절	[수준1] 정적·부적 정서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수준2] 자신의 정서에서 거리를 두거나 반영적으로 바라보기
	[수준3]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들여다보기
	[수준4]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기

(Salovey & Sluyter, 1997, p.11)

이 새로운 모형은 두 가지 점에서 종전의 모형과 크게 다르다. 첫째는 정서와 사고를 좀더 명백히 관련시켜 한편으로는 EI와 지능과의 공통성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지능과의 변별성을 높이고자 애썼다는 점이다 (제 II영역). 둘째는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위계,(능력의 중요성에 따른 위계)와 수준(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발달수준)으로 배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이 종래의 모형에 비해서 얼마나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모형의 적절성 여부는 첫째, 이 모형에 입각한 EI의 측정이 가능해야하고 둘째로, 16개의 EI요소들 간에 적절한 독립성과 상관성이 발견되어서, 이른바 정서지능의 능력 실체가 타당하고 신뢰롭게(통계적으로) 제시되어야하며 셋째로, 이 측정된 EI의 점수가 실제로 개인들 간의 행동과 사고의 개인차를 설명하고 예언할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는 이런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저자들 자신들이 아직까지 그런 모형에 입각한 정서지능 측정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 자신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이 모형에 입각한 EI개념의 공고화는 이제 비로소 시작에 불과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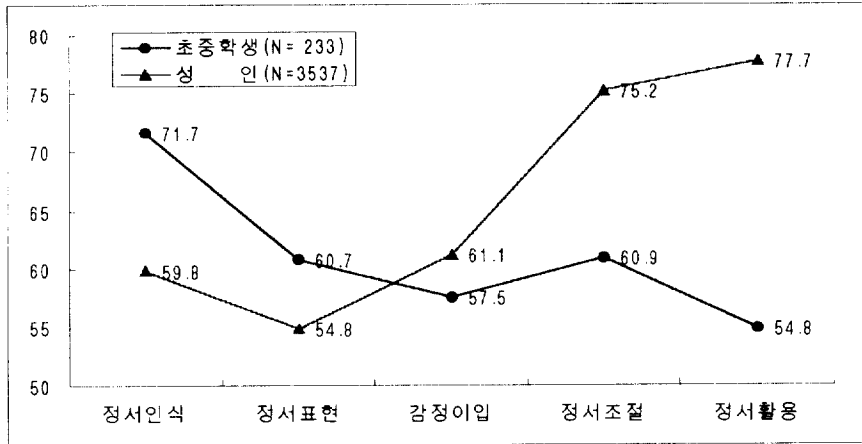
III. 정서지능 연구의 현황과 수준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정서지능의 이론적 공고화(theoretical formulation)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연구이다. 둘째는 정서지능이 사람들의 생활 적응과 삶의 성공과 실패의 예언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연구들이다. 셋째는 정서지능을 어떻게 개발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가 하는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연구이다. 이를 각각 이론연구, 응용연구, 교육연구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EI에 대한 이론 연구는 아직 매우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Mayer와 Salovey 자신들이 아직까지 신뢰로운 EI 측정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가장 큰이유가 될 수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지난 4-5년 동안 새로운 모형의 구안에 전념하느라 측정검사 개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셈이므로, 이를 바탕으로한 EI 측정검사 개발을 이 저자들이 크게 서두르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EI의 16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집요하게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정서인지능력에 관련된 기초능력이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고, 정서인지 능력이 감정입 및 정서개발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Salovey & Sluyter,1997, pp.16-17).

우리 나라에서의 EI에 대한 이론연구는 문용린의 연구(1996)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다섯 가지 EI 능력을 재는 47개 문항으로 된 EQ검사를 제작하고, 이 검사의 심리측정학적 특징들을 규명코자하였다. 다섯 하위검사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s)는 .66 -.81로 나타났고,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47개 문항들의 거의 80%가 기대한 능력을 재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다섯 요인들이 검사가 재는 총변량의 36%를 설명하고 있어서 한국에서의 EQ검사 개발의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여 주었다. 아울러 그는 초, 중학생 집단과 성인집단의 EQ를 독립적으로 측정한 후 하위능력별로 평균치를 비교하여 EI의 발달적 특징을 규명코자 했다.(표3 참조)

【표 3】 EI의 발달적 특징(초, 중학생 대 성인)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성인이 되어 가면서 감정이입과 정서 조절, 그리고 정서활용 능력이 확대 발전되어 가는 듯하다. 어렸을 때에는 정서인식과 표현이 성인시기에 비하여 더 용이하고 자연스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곽윤정(1997)과 정영숙(1998)의 연구도 이론연구의 전형적 사례이다. 이 두 논문은 문용린(1996)이 제작한 EQ측정검사를 이용하여 정서지능을 측정 한 후에 이것과 연령, 남녀, 일반지능(IQ),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학업성취도, 사회성 발달수준, 비행성향, 그리고 교사의 평정점수 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서지능은 IQ와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13 - 13 범위)를 보였다. 남녀간에 정서지능의 평균치는 여자가 다섯 영역 모두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초, 중학생간에서도 정서지능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EQ와 학업 성취도 사이에도 별 상관이 없었다. 정서지능과 사회성간의 상관성도 낮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만 보면 그 상관성이 의미 있게 나타난다.

그러나 정서지능과 다중지능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성이 다수 발견되곤 했는데, 특히 다중지능 중에서도 대인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과 자기관리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이 EI의 여러 요소들과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였다. 의미 있는 EQ차이는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사이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물론 비행 청소년의 정서능력이 낮았다. 정서지능과 교사평정 간에도 정적이고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났다.

EI에 대한 응용연구는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인터넷상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EQ 사이트 제공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사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론 검증의 목적보다는 일반인들의 EQ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EQ Test는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열거한다면, Digital Work 社가 제공하는 "Emotional Intelligence Test", Q-Metrics 社가 제공하는 "EQ-Map", Goleman의 Utne Reader 사이트가 제공하는 "E-IQ Test"가 그것이다. 응용연구의 두 번째 모습은 EI의 개념을 기업체나 관공서 등의 조직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려는 연구들이다. 예컨대 EI를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등의 개발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EQ와 리더십을 관련 시키고자한 연구는 Goleman 등에 의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고 실적도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런 응용연구는 삼성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예컨대 삼성인력개발원에서는 신입사원교육과 간부 교육에서 EQ를 개발하기 위한 "EQ Diary" 등의 EQ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사용한 바 있다.

EI에 대한 교육연구에도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심이 있다. 하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EQ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이다. 예컨대, ISAEI(The International Society of Applied Emotional Intelligence)는 인터넷상에서 성인, 부모, 부부를 위한 EQ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물론 학교와 교실용의 EQ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EQ교습을 광고하는 학원형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도 물론 연구개발의 형태로 EQ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규학교에서 사용할 EQ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시 공립학교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Resolving Conflicts Creatively Program”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교장연수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EQ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에서 개발한 “엄마를 위한 자녀 EQ개발 워크샵”이 있다.

IV. 정서지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이래 이상할 정도로 부풀려 올랐던 EQ에 대한 과잉관심의 열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는 듯하다. 과잉 관심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연구 관심이 줄어들었고, 상업적으로 EQ라는 말이 남용되어 학술적 개념으로서의 품위조차 훼손될 지경이었다. 이제 그런 과잉 관심이 가라앉고 있는바, EQ에 대한 관심 모두를 한꺼번에 가라앉히지 말고 학술적 관심은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 시켜나가야 한다.

향후 EQ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새로운 EI의 16요소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연구에는 한국인의 정서능력과 특징을 고려한 연구설계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서생활의 개인차와 공통점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효율성과 유용성을 함께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 모형에 입각한 신뢰로운 EQ 측정이 보장되어야한다. 이 일이 우선 먼저 학자들이 해야할 일일 것이다.

둘째로, EI의 응용연구가 보다 다양한 계층의 집단과 활동을 대상으

로 이루어져야한다. 예컨대, 군대, 교도소, 대학, 공무원, 교사, 기업체 등으로 EQ연구가 확산되어 가야한다.

셋째로, EI에 대한 교육연구는 특히 강화되고 강조되어야한다. 도덕적 품성을 중요시하는 한국에서는 특히 정서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EQ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해야한다. 학교의 표면적이거나 잠재적인 교육과정 속에 정규적인 EQ개발교육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R&D 형식의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한다.

넷째로, 정서지능의 발달이 특히 생애 초기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유의해서 유아시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EQ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과 교사 등 자녀양육 책임자들의 EQ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8) 초등학교에서의 정서지능 개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지도자과정 현장교육연구보고서(현장교육탐구보고 98-1). 서울: 서울대 사범대 교육행정연수원
- 문용린(1997) EQ가 높아졌어요. EQ개발 워크샵 자료. 서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서울대 교육연구소.
- 문용린(1997) 삼성 EQ검사 결과보고. 원고. 서울: 서울대 교육학과 도덕교육연구실.
- 정영숙(1998) 지능과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om Books.
- Mayer, J. D., Salovey, P. (1993)."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17. pp.433-442.
- Salovey, P.,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3). pp.185-211. 1989-90.
- Salovey, P., Sluyter, D. J.(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Harp Collins Pub.